

2010년 3월 18일 목

생명구원의 역사 일으키자

정명심 (대구스타)

2009/ 12/ 31

(2009년 12월 31일 교회에 성령이 식어 나오지 않는 생명이 있어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 생명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겠으니 제발 그 생명 살려달라고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 했을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생명구원하라고 밖에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했느냐

그것도 생명구원의 가장 상징적인 방법이지만

너희가 목숨 걸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구원이다

사명을 다하는 것도 생명구원의 역사다

관리자들 관리해 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며 귀기울여 들어주고

장차 나에게 쓰일 귀한자들로 만들어 주고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키워주는 역할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다

생명구원의 역사 나와 함께 하자

보란듯이 저 세상앞에 증거해 보이자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있노라고

절대 섭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각오되었느냐

할수있다

그동안 너희는 나에게 연단되어온 힘이 있노라

결코 나약하지 않다

세상앞에 당당히 서자

(제가 어떻게면 교회 부흥이 잘될까요 하고 여쭙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고 체계적으로 나가라

꾸준히 나가라 틈틈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나가라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나에게 보고하고 상의하고 행한 자 생명결실의 복이 돌아가리

너희의 일거수 일투족 나에게 고하고 행하라

세밀히 자세하게 말하라

내가 모든 것 틀어버릴수 있다

생명의 근원은 나니라 내가 주관하노라 의심말고 맡겨라

나는 절대자니라

걱정마라 나는 너희 옆에 있는 신랑 예수니라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자니라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내가 따로 길러온 특공대 같은 자들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의심하는 것이며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니라

절대 믿어라

절대적 믿음을 보여라

생명구원은 너희끼리 할 수 없다 나와 함께해야 역사 일어난다

2010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표적을 이루자 하지만 내가 아주 떠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성령역사 일으켰듯이 생명구원의 역사도 불같이 일으키자

섭리의 큰 표적의 역사 일으켜 세상을 깜짝 놀래주자

그것이 너희 선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자

너희도 살고 나도 살고 너희 선생도 살고

내아버지 어머니도 살고 이역사 살려보자

나 기대에 부풀어 너희들이 따라오기만을 기다리노라

사랑한다 섭리의 신부들이여

너희들의 신랑 나 예수가